

Hölderlin 文學의 本質에 關한 考察

李 榮 久

Über die Wesentlichkeit zu Hölderlins Dichtung

Lee, Yung Koo

차례	
1. 緒 言	3. Hölderlin文學의 本質
2. 古典主義와 浪漫主義로 보는 Hölderlin 文學	4. Hölderlin의 그라이스 精神과 獨逸主義
1) 古典主義로 보는 Hölderlin 文學	5. 結 言
2) 浪漫主義로 보는 Hölderlin 文學	參考 文獻

Zusammenfassung

Friedrich Hölderlin wurde im Jahre 1770 aus Städtchen Lauffen am Neckar geboren Seine Eltern waren recht fromme Menschen, aber er behielt den Vater nur wenige Jahre. Und auch der zweite Vater, der liebevolle Beschützer, starb bald dem Kind hinweg, da war Friedrich 9 Jahre alt. Er hatte also ein trügisches Leben von Geburt an.

Mit 14 Jahren trat er in die niedere Klosterschule zu Denkendorf ein und zwei Jahre darauf in die höhere von Maulbronn. Es war nicht seine Hoffnung sondern die seiner Mutter, einst der Pfarrherr zu werden. Hölderlin wünschte schon ein Dichter beim Klosterschüler zu werden.

Anfangs von Gedichtmacher hatte Schillers und Klopstocks Stil auf Hölderlins Gedichte gewirkt, vornahm auf seine Hymnen, denn er wollte ein Schiller als der idealische Dichter werden. Darauf bildete er stets die charakterische Wesentlichkeit auf seiner Dichtung aus. Es gibt die Wesentlichkeit zu Hölderlins Dichtung in der Sehnsucht nach Griechentum, d. h. der griechischen Geist und die Renaissance des Griechentums. Er glaubte, daß sich Ideal und die Schönheit der Menschheit vorbildlich in den alten verkörpert hatten.

Trotzdem fassten manche Rezensenten in der Hölderlins Dichtung Klassik oder Romantik auf,

und klitsierten die Dichtung mit klassischem oder romantischem Theorie. Ich beurteile hier, sie vertraten übermäßig, daß die Zeitströmung damals, Klassik und Romantik, vollständig auf der Dichtung der Priedod-gewirkt hatte.

Darum muß ich die so aufgefassten und behaupteten Rezensionen auf dieser Schrift besprechen, um die eigene Wesentlichkeit zu Hölderlins Dichtung gründlich zu verstehen. Zusammengefaßt wünscht Hölderlin aufs eifrigste, die Renaissance des Griechentums verwirklichen sich in Vaterland, seinen Deutschen, wie in alten Griechen.

Dies ist sein eignes geistiges Deuschtum und die Wesen in der Dichtungen Hölderlins.

1. 緒 言

Friedrich Hölderlin (1770~1848)이 詩人으로서 活動한 時代는 獨逸文學史上 思想的으로나 文學的으로나 가장 濼刺하게 전개된 時代였다. Kant, Fichte를 비롯한 濼성한 哲學思想과 並行하여 文學으로는 啓蒙主義(Aufklärung)¹⁾와 Sturm und Drang²⁾을 거쳐서 Goethe와 Schiller의 古典主義(Klassik)가 完熟期를 맞는가 하면 동시에 Schlegel 兄弟, Tieck, Novalis를 筆頭로 <初期浪漫派-Romantische Schule³⁾>가 結成되어 浪漫主義 (Romantik)의 理論을 定立하면서 한편 그 活動이 또한 왕성한 時代였다. Hölderlin은 특히 古典과 浪漫的 交叉期에 즈음하여 그를 理解하는데 적지 않은 混亂을 준다. Hölderlin의 文學은 古典主義도 浪漫主義도 아니다. 그런데도 批評자들은 대체로 古典的인 또는 浪漫的인 立場에 치우쳐서 그를 批評하고 있음을 본다. 그들은 兩思潮에 立脚하여 그의 文學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Hölderlin의 本質에 접근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批評의 基本的인 태도에서 이미 誤謬를 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Hölderlin의 文學期가 兩大思潮의 活潑한 時期와 때를 같이하고 있어서 이 時代는 바로 古典과 浪漫的 文學이 두 山脈을 이룰만큼 全體的인 主流를 빚고 있어서 批評家들은 쉽사리 露出된 部分을 가지고 古典的인 아니면 浪漫的으로, 그 文學과 思想의 特徵의인 樣相에다 誘寫하여 批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矛盾을 감당해야 할 要因이 Hölderlin에게도 있다. 말하자면 그의 文學이 同時代로 간주 하더라도 이들과 區別되는 確연한 異質性을 보였던가 또는 특별히 獨特한 genre나 mode를 俱現한 詩人이 었다면 차라리 그 正體가 뚜렷했을 것이다. 測面으로 보아서 Hölderlin

- 1) 1720~1785에 전개된 文學思潮. 中世的인 教會特權에서 解放하여 合理主義를 부르짖고 理性으로서 人間의 모든 것을 營爲하려는 思想과 文學. Lessing가 그 代表임.
- 2) 1767년에 Aufklärung에 反對하여 전개된 文學運動으로서 理性 萬能主義에서 人間의 感性和 그 個性을 주장 하는 적극적인 독일의 文學運動.
- 3) 浪漫主義文學의 先導的 역할을 한 Schlegel의 형제와 Novalis, Tieck를 中心으로 結成된 모임. 本來는 浪漫派라고 했는데 뒤에 활동한 Heidelberg, Berlin, Schwaben을 中心으로 活動한 浪漫主義文學과 區別하기 위하여 初期또는 前期浪漫派라고 한다.

學에는 古典과 浪漫의 特徵의인 要因을 어느정도 函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자칫 Hölderlin이 詩人으로서 如何 瞬味한 文學精神의 所有者로 評價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筆者의 解釋은 詩人의 文學觀이나 世界觀으로 보아서 그의 文學精神은 古典과 浪漫과 같은 時代 思潮의인 意識을 초월한, 오직 자신의 文學精神의 形象化를 위해 충실히 노력한 詩人이었다. 다만 詩人이 되는 첫 過程에서 古典의 文學의 影響이나 浪漫의 思想의인 影響은 어느정도 感受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좀 더 附言하면 Hölderlin이 자신의 文學을 위한 最善의 形相이 바로 古典과 浪漫이 腐刻한 形相과 橫的으로 정도껏 類和되었을 것을 認定해야 할 것이다.

Hölderlin文學의 本質的인 問題는 사실 時代上의 主義와 그 流派와 關係없는 곳에 있었다. 지극히 孤獨한 自意識속에 獨自의이고 信仰의인 文學精神의 所有者였다. 그러나 그의 文學精神을 表出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文學을 여러 測面에서 觀察하고 批評한 많은 論據를 外面하지 못한다. 그들의 主張을 포착하고, 그 부당하고 무리한 解釋을 밝힘으로써 Hölderlin 文學의 本質의 所在을 究明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本 考察은 一般的으로 Hölderlin에 對한 批評家들의 論據의 焦點이 되고 있는 古典主義와 浪漫主義에 대한 批判을 中心으로 叙述하고 그리고 Hölderlin 文學의 本質을 밝혀보려고 한다.

2. 古典主義와 浪漫主義로 보는 Hölderlin 文學

Hölderlin 文學은 時代的으로 보면 獨逸의 兩大 文學思潮인 古典主義와 浪漫主義成立과 때를 같이하고 있어서⁴⁾ 時代的인 意識이 그의 文學과 思想의 形成過程에 그 作用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 一面에서 많은 文藝批評家들은 그들의 主觀的인 持論에 沒入하여 Hölderlin 文學을 古典主義로, 또는 浪漫主義로 斷定하는 例를 허다하게 볼 수 있다. 사실 Hölderlin 文學은 두 줄기 文學思潮의 脈絡 속에서 그 人間과 文學이 成長되어 왔었던 까닭에 어느 測面에서 보면 Hölderlin의 氣質이 순수한 自由의 意志로서의 浪漫的인 素地가 있었으며, 그런가 하면 古典主義文學의 影響 또한 多大하였다. 이를테면 獨逸國民文學의 立場에서 볼때 Geethe 文學만큼 깊이와 幅을 가진 詩人도 없으며 또한 作品의 多樣性에 있어서도 追從할 이가 없다. 可히 絶大的인 存在로서 그 影響은 不問可知였으며, 또한 Geethe와 같이 古典主義를 完成한 Schiller 文學의 美學은 특히 Hölderlin의 詩에 직접적이고 깊은 影響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一聯의 脈絡은 Hölderlin 文學의 批評家들에 依해서 이미 多角的으로 검토되고 分析되어서 Hölderlin 文學에 對한 理論을 세워왔다. 그러나 그 理論은 지나치게 主觀的인 바탕에서 凝結되었거나 部分을 擴大하여 解釋하고 있다. 여기에 그 批評의 低邊에 깔린 共通的인 焦點은 Hölderlin 文學을 時代思潮의 兩面的인 古典

4) 하나의 思潮에 대해서 시작과 끝이 명백한 것은 아니지만 文學史에 의하면 Klassik은 1786년~1805년으로, Romantik은 1798년~1835년간을 그 期間으로 보고있다. 그리고 Hölderlin의 一生이 1770년에서 1848년인데 그의 精神喪失期 40년을 빼면 그의 活動期는 Klassik은 거의 같은 時期이고 Romantik보다 약간 앞선다.

과 浪漫的 對稱的인 關係에서 그를 把握하려는 태도이다.

다시 말하면 Hölderlin 文學을 古典이라고 하면 한便은 浪漫이라고 본다. 即 非浪漫이면 古典이란, 지극히 圖式的인 해석을 하고있다. 그러므로 Hölderlin 文學의 순수한 本質을 究明하려면 우선 批評家들의 古典的인 見解와 浪漫的인 主張의 論據를 比較 檢討하여서 Hölderlin의 眞面目을 찾아야 할 것이다.

1) 古典主義로 보는 Hölderlin 文學

Hölderlin 文學을 古典的으로 보는 代表的인 要因은 대체로 두가지 觀點에서 要約된다. 그 하나는 그의 詩作期가 前述한 바 古典主義와 一致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의 詩에서 강력하게 풍기는 形式美를 指稱한다. 그러나 古典主義의 時期에 詩를 쓴 詩人이라하여 그를 古典派 또는 亞流로 간주한다는 것은 대단히 矛盾된 論理이지만 Hölderlin 文學의 경우에는 部分的인 說得力을 지니고있다. 그 첫 段階는 Hölderlin 文學이 形象的으로 露出된 部分이 古典主義의 特徵 속에 용해 될수 있는 點에서 그러하다. 이를테면 Hölderlin의 小說 <Hyperion>의 背景이 되는 그리이스는 原初的인 意味를 지닌 古典의 象徴일 수 있다. <Hyperion>에 가득찬 古代 그리이스 즉 Helas에의 讚美와 그리이스의 自然, 神話속의 神들, 그리고 英雄에의 懷古는 復古와 일치하는 Renaissance 精神으로 通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oethe의 <Wilhelmmeister Sehnjahr und Wanderjahr—1780>과 系列을 같이 하는 Bildungs Roman⁵⁾이라는 點이다. Hyperion을 물론 Bildungs Roman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點으로 미루어 古典的인 色彩로 볼수 있다. 이러한 視點에서 보면 Hyperion 뿐만 아니라 Hölderlin의 詩作品에서는 더욱 顕著한 古典的 美色이 확연히 나타난다. 이러한 共通性 내지 類似點을 어째서 時期的인 一致로서 歸結시켜야 하는지 의아 할 것이다. 왜냐하면 上述한 共通性 또는 類似點을 古典의 成分과 비교하여 그 判斷의 眞僞에 대한 論理的인 說明을 해야 할것을, 다만 古典과의 關係를 <時間的인 單位>로 罵倒하려는 素意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에 對한 解明이 곧 時期的인 一致로서 古典에 結付시키는 두번째 論及이 되겠다. 즉 Hölderlin 文學에서 抽出해 낸 上述한 諸要因은 한마디로 Hölderlin을 <古典과의 關係속에> 確立하려는 意圖的인 考證같은 印象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것은 Hölderlin文學에 對한 根元的인 不信 때문이다. 말하자면 Hölderlin 文學을 獨自的인 文學, Hölderlin의 全人的인 文學으로 파악하려는 批評家의 精神이 欠如된 때문이다. 結論的으로 말하면 그들은 Hölderlin 文學을 古典的으로 斷定하고 作品의 表面에 나타난 것만으로 充分한 要素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은 古典主義 時代의 影響下에서 Goethe와 Schiller로 능가하는 詩人이 있을 수 없다는 先驗作用이 Hölderlin 文學을 간단히 소위 <古典派—Klasische Schule> 정도의 亞流로 却下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몇가지 要因이 근원적으로 <時期的인 一致> 또는 <時代性> 때문에 그의 文學의 眞面

5) 18世紀後半의 人文主義들이 人間에 內在하는 여러가지 素質을 調和的으로 發達, 人間의 全人的 發達을 目的으로 하는 小說, 이것은 作家의 意圖的이고 目的的이므로 genre의 독특한 것은 없다. 특히 古典의 Goethe, Schiller文學이 그 典型임.

目이 焔沒되어 버린 것이다. 古典을 主張하는 批評家들이 Hölderlin의 文學을 古典의 으로 보는 主된 論旨는 그의 詩作品에 일관된 形式의 美를 지적하면서 한편 이 形式美를 Schiller의 模放 이 아니면 철저한 踏襲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실 Hölderlin이 Schiller에게서 받은 영향은 至大한 것이었다.

詩人의 初期段階에 있어서 大개 先人들에게 模範的인 對象을 구하듯 Hölderlin 역시 그의 詩의 形成過程에는 Klopstock와 Schiller에게 師事하였다. Schiller는 詩句에 押韻을 驅使하여 冥想的 抒情詩에 旋律的인 調和를 이루게 하므로써 독특한 그의 文體를 확립한 것이다. 그는 內部的인 過程을 外部的인 形式에 一致시키므로써 思想과 情感이 調和를 이루어 그 詩는 하나의 美로 形象化되는 것이다. Hölderlin은 Schiller에게서 이렇게 詩의 美學을 發見한 것이다. 그는 Schiller에서 言語가 나타내는 施律의 힘을 보았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W. Dilthey는

Hölderlin bemächtigt sich des Neuen in der Form dieser Lyrik: des inneren Rhythmus, der den Verlauf des seelischen Vergangs durch die Anordnung und Verbindung der Perioden ausdrückt, Hier lag der Anfang eines rhythmischen Stiles.⁶⁾

Dilthey는 Hölderlin이 Schiller의 抒情詩에서 하나의 새로움을 發見하고 곧 그것을 터득했다고 말한다. 即 心的인 經驗이 進行되는 過程을 段階의 으로 詩句에 形象化하고 그것을 다시 結合시키므로써 表出되는 것이 內的 律動임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써 그는 <律動的인 文體>를 스스로 驅使한 것이다. 이리하여 씌어진 것이 Hölderlin의 一聯의 頌詩이다. 이 頌詩의 內容은 人類의 理想을 示顯하려는 詩人의 理念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Müse의 女神, 自由, 人類, 美, 友情, 그리고 調和의 女神등 初期에 있어 그의 詩才를 보여준 頌詩는 Schiller의 영향이 가장 잘 結晶된 것이다. 그러나 Hölderlin은 Schiller의 영향 속에 오래 빠져 있지않았다. 그의 思想은 점차 擴充 되어가고 體驗은 깊어갔다. 따라서 그의 世界觀도 變해 갔다. 이제 그는 Schiller의 初期 作品에서 점차로 獨自的인 文學으로 發展되어 갔다던 것이다. 그의 詩 <Zornige Sehnsucht>는 스스로의 發展的인 體驗을 얼마나 갈망하였는지 알 수 있겠다.

Ich duld es nimmer! ewig und ewig so
Die Knabenschritte, wie ein Gekerter
Die Kurzen, VorgemeBenen Schritte
Täglich zu wandeln Ich dulde es nimmer⁷⁾

여기에서 Hölderlin이 자신의 文學을 形成하려는 意志와 力量을 充分히 엿볼 수 있다. 以後 그의 노력은 思想的인 面에서 그리고 形式에 있어서도 獨自的인 文學을 위한 修業이었다고 하겠다. Hölderlin의 思想的 發展은 그의 文學의 本質을 이루는 核心이기 때문에 다음 章에서 詳論하겠지만, 그에 對한 古典的인 主張은 詩의 形式面에서 많이 指摘하는데 대체로 그 重心的인것은

6) W. Dilthey: Das Erlebnis und Dichtung. S 226

7) Fischer Bücherei: Hölderlin. S 27

Schiller의 영향을 十分 예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Hölderlin의 初期現象에 지나지 않음을 注目해야 할것이다. 古典的인 見地에서 적극적으로 Hölderlin 文學을 批評한 W. Böhm은 그의 著書 <Hölderlin>에서 時代的인 思潮와 Hölderlin 文學의 素朴性, 孤獨한 內面的인 苦惱, 그리고 끊임 없는 憧憬에 依한 未來的인 世界의 追求, 이렇게 文學의 理想的인 內容이 완벽한 形式속에 調律되어 있어서 하나의 美學的인 造形을 이룬 標本이라고 하였다. Böhm은 結言하기를 <Hölderlin은 樣式에의 意志에서 出發하며 충실하게 成功한 詩人이다. 그는 樣式에 依한 철저한 制約을 받고 있다. 詩의 外形은 音樂의 리듬을 갖추고 있고, 內形은 人間의 理想을 觀念的인 體驗을 通하여 詩로 形象化되어 있다. 특히 言語가 지닌 絶對的인 意味의 言語를 선택하여 詩人의 精確한 意志를 表出한 詩, 이것은 文學이 지니는 最高의 美學이다>⁸⁾라고 극찬하면서 斷呼하게 <이것이 바로 樣式的 意志로 昇華된 古典的인 美>⁹⁾라고 Hölderlin文學에 대한 古典的 主張을 굳히고 있다. Böhm의 말을 더 敷衍하면 古典主義가 표방하는 소위 <形式은 調和와 統一의 均衡을 잃지 않을 것을 生命으로 하고, 藝術이 志向하는 美的 理想은 內容과 形式의 一致에 根幹을 두는 것이다.>¹⁰⁾라고 하는 規範에 비추어보면 Böhm은 Hölderlin의 抒情詩가 보여주는 調和된 形式美와 古代 그리스에 있어서 人間과 自然과의 調和를 憧憬하는 Hölderlin 文學의 理想을 取捨하여 그에게 古典의 衣裳을 裁斷하여 입혀 놓았다. 그러나 Böhm의 主張은 Hölderlin을 너무 단순히 한 測面에서만 觀察하여 表皮에 젖어있는 Schiller的인 音色만을 들고서 Hölderlin 文學의 全部를 裁斷하였던 것이다. 古典主義文學의 匠人 Schiller가 미친 영향은 前述한 바이지만 우리들은 적어도 Schiller의 영향보다 더 깊은 Hölderlin 文學의 本質을 찾아서 評價하지 않으면 近視眼的이고, 批評家의 印象的인 寸評에 사로 잡히고 말 것이다. 다시말하면 Schiller의 影響圈으로 Hölderlin 文學을 파악하려고 한다면 언제나 Schiller的인 先入見, 또는 印象의 장애를 받아 Hölderlin 文學의 本質은 고사하고 영영 그 價値마저 歪曲되게 할 뿐이다. B. Boesch는 이에 對하여 그의 獨逸文學史에서 <Hölderlin은 폭넓은 독자적인 형식을 개척해 나갔다. 그의 형식은 Herder, Klopstock의 頌歌, 특히 Schiller의 詩樣式과 연관성을 가졌으나 얼마 안가서 자기의 독자적인 형식을 발견하였다. 그의 초기의 頌歌는 이상적이면서도 그러나 Schiller의 의미에서 추상적인 모티브가 青春의 感慨와 열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의 俯職은 기쁨이요 우리의 殿堂은 自然이니라)라는 音調는 아직 자기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시기에 속하는 韻文의 頌歌인 Der Gott der Jugend는 완전히 독자적인 牧歌化된 것이다>¹¹⁾라고 하였다. Boesch는 Hölderlin의 古典性이 지나친 偏見임을 이해하게 해준다.

Hölderlin이 입은 영향가운데는 Klopstock를 빼놓을 수 없다. W. Dilthey도 Hölderlin論에서 지적하듯이 Klopstock는 Hölderlin의 詩的文體(der poetische Stil)를 형성함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

8) W. Böhm: Hölderlin. Otto Elsner Verlag, B. G. Berlin 1917, S. 48

9) W. Böhm: ibid. S. 104

10) Gesellschaft für Germanistik: Deutsches Literaturlexikon, *Klassik.

11) B. Boesch: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in Grundzügen. 한국 독문학의 譯, S. 401

을 했었다. 특히 Klopstock의 〈言語의 轉換法—die sprache Wendung〉과 〈連結法—Serbindungsweise〉는 Hölderlin의 初期부터 끝까지 지켜나간 方法이 있었다. 그러나 Hölderlin이 Klopstock의 方法을 그대로 踏襲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Klopstock의 頌歌에서 보는 形式을 가장 效果的으로 活用하면서도 B. Besch의 딱처럼 獨自의인 詩의 技巧로 발전해 갔다. Hölderlin은 이러한 自身의 成長을 이렇게 表現하고 있다.

Lebt wohl, ihr güldnen Stunden vergangner Zeit,
Ihr lieben Kinderträume von GröB und Ruhm,
Lebt wohl, lebt wohl, ihr SpiegelBpdn.¹²⁾

이것을 보면 그가 詩作의 初期에서 누구나 겪는 模倣과 影響에서 벗어나 獨自의인 詩人이 되려고 하였고, 그리고 그 意圖가 어느 정도 結實되어 갔을때 그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다. Hölderlin의 形式을 古典의 典型에서 誘導하고 끝까지 Schiller의인 圈內에서 踴躍하여 그를 古典主義, 또는 그 亞流로 踴躍함은 지나친 獨斷임은 이것으로도 알 수 있겠다.

그리스에의 憧憬은 Hölderlin 文學의 本質을 究明하는데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文學을 批評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의 〈그리스 憧憬〉을 擧論하지만 또한 그만큼 歪曲된 해석도 적지 않다. 대체로 여기에서도 古典的인 觀點과 浪漫的인 立場에서 相反된 見解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Hölderlin의 古代 그리스에의 憧憬은 浪漫的 꿈도 아니고 또한 古典的인 表象도 아니다. Hölderlin의 그리스는 꿈이 아니라 理想이었고 더욱 實現되어야 할 現實의 理想으로서 絕對的인 要望이었다. 自然과 人間이 神性에 의하여 統一되고 調和된 그리스, 그러한 古代의 그리스를 Hölderlin은 결코 Platon의 理想國家로서가 아니라 現實의인 祖國 獨逸에서의 實現을 희구한 간절한 憧憬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에서의 憧憬은 무엇보다 Hölderlin의 강한 意志에서 抽出된 生의 志向이었다. 이에 대하여 Hölderlin의 生涯처럼 그의 그리스 憧憬을 心弱한 病者의 우연한 夢想的인 것으로 보면서 그와 같은 性질의 소유자가 갖는 憧憬이란 積極적인 理想이 아니라 약한 體質에서 야기된 逃避라고 주장하는 R. Haym은 〈그가 그리스인이었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를 노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는 人間 가운데 가장 불행한 그리스인에 대해 괴로워 하며 오히려 18세기의 야만인인 獨逸人을 동경하였을 것이다.〉¹³⁾라고 지극히 輕蔑의이고 假定的인 表現을 빌어서까지 誹謗하고 있다. 이에 對하여 文藝理論家인 F. Gundorf 教授는 Haym의 論及을 全혀 荒唐무계한 論理라고 일축하고 있다. Gundorf는 〈詩人의 本質을 파악하려는 사람은 詩人의 生活過程에 구속받아서 안된다. 모름지기 詩人의 作品에서, 그의 世界와 그의 自然이 가장 明確하고 가장 좋은 形式을 갖추고 있는 創作物에 依하지 않으면 안된다. 詩人에 대해서는 그 作品 이외에 아무것도 아는바 없이 읽는

12) Goldmanns Gelbe Taschen Bücher: Hölderlins Brief. München, 1957, S. 48

13) R. Haym: Die Romantische Schule. George Müller Verlag, München, 1931, S. 121

사람이 아니면 결코 그 詩人을 진실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¹⁴⁾라고 批評者의 批評態度에 對해서 단호하게 言及하고 Hölderlin에 대하여 <그리이스는 그의 原初的 體驗이며 그는 그리이스 속에 살고 있었다. 그는 그리이스에 對한 이같은 강한 憧憬이 있었기 때문에 주위의 反그리이스的인 神性を 상실한 世界를 싫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¹⁵⁾

이상의 두 論據에서 보면 R. Haym은 Hölderlin의 憧憬을 단순히 憧憬내지는 浪漫的인 現實逃避로서 해석한데 反하여 F. Gundorf는 古典的인 立場에서 全的으로 그의 그리이스 主義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지만 Gundorf가 그리이스에의 憧憬을 Hölderlin의 순수한 世界觀의 志向으로 보는데 肯定하지만 그를 소극적이거나 古典的인 意味를 부여하려는 것은 贊成할 수 없다. Klassik이란 元來 두가지 種의 뜻이 융합하고 있기 때문에 古典이란 意味의 二元性を 混用해서 는 안된다. 古典이라 하면 첫째 通俗的으로 通用되는 古人의 傳統을 繼承한 것으로 유럽에 있어서는 古代그리이스와 로마와의 文化的인 關係概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通念이고 둘째는 순수한 古代그리이스, 로마의 文化精神에 입각한 自國의 國民文學으로 이어진 發展的인 古典像을 뜻하는 것이 古典主義이다. 그러므로 獨逸에 있어서도 Goethe 時代의 一期를 특히 古典主義로 指稱하고 있는 것은 後者의 뜻으로써 쓰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ölderlin의 古代 그리이스 憧憬을 古典的으로 解釋 하려는 것은 前者의 意味 즉 古代 그리이스의 文化에 대한 意志 내지는 鄉愁로서 처리하려는 지극히 안이한 批評家의 眼目 때문이다. 이것을 그대로 Hölderlin에게 適用하므로써 커다란 착오를 빚게 된다. Hölderlin의 文學精神을 단순한 古代 그리이스에의 鄉愁나 復古的인 希求로 파악한다면 Hölderlin 文學의 本質과, 그 孤孤한 獨自性を 이해하는 열쇠는 찾을 길이 없다. 우리는 Hölderlin의 文學에서 時代와 初期 詩作의 形式的인 影響, 그리고 詩人의 그리이스 精神을 古典主義나 또는 그와 類似한 어떠한 標題 아래 처리해서는 안된다오직 Hölderlin 文學의 本質의 所在를 찾아야 비로소 그의 獨自的인 意義와 그 精神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2) 浪漫主義로 보는 Hölderlin

浪漫主義의 觀點에서 Hölderlin을 定立하는 見解 또한 古典主義의 主張 못지 않게 강렬하다. Hölderlin의 文學的活動이 獨逸의 初期 浪漫派가 그들의 文學理論을 定立하여 古典主義에 대한 對立的 立場을 선언한 것과 時期의 差는 있지만 그가 Jena에서 浪漫主義 理論의 基礎가 된 Fichte의 哲學講義에 參加했었고 그와 가까이 交流하므로써 類抽되는 浪漫性, 그리고 Hölderlin의 憧憬을 浪漫的인 꿈 내지는 現實인 逃避로 간주하여 해석하려는 點을 들어서 Hölderlin의 文學的인 本質이 浪漫性과 相應하는 素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論據는 어느 것이나 Hölderlin에게 符合되는 것같아서 자칫 部分을 가지고 全體를 劃一化하려는 모순을 빚기 쉽다. 이하 순서적으로 그것을 敘述할 것이다. Hölderlin을

14) F. Gundorf: Dichter und Helden. 橋 忠衛 譯 櫻井書店 1942, S. 176

15) F. Gundorf: ibid. S. 204

Romantik과 關聯 지으려는 첫째 意圖는 그들 時代精神(Zeitgeist)의 一環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실 한 時代를 누리는 思潮는 그 時代의 精神과 生活狀態를 特徵的으로 支配하기 때문에 大衆은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時代精神 속에 參與하게 되며, 여기에 功獻하게 된다. 詩人들의 活動 역시 그 時代精神의 中心圈속에 作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作品은 대체로 一律性을 띤 系列的인 流派를 이룬다. 다시말하면 詩人 個個人의 個性과 特性은 微細할뿐 이들은 時代性에 立脚해 있기 때문에 한결같이 그 時代思想의 몇가지의 特徵으로서 설명될 수 있음을 본다. 이러한 觀點에서 보면 時期的으로 一致하는 詩人이나 作品은 그것이 전혀 異質的인 것(浪漫主義와 寫實主義程度로)이 아니라면 草綠은 同色이란 의미로 풀이될 여지가 있다. 더구나 文學史家 들은 時間과 思想을 가능한 한 直線으로 區劃하고 標題 속에 詩人과 그 作品을 整理하려고 하기 때문에, 枝葉的인 個性의 特徵은 쉽사리 隱蔽되기 마련이다. Hölderlin의 文學도 이러한 普遍化主義에서 浪漫主義로 吸收되어 초목의 빛을 받게 되는 것이다. 勿論 批評家가 Hölderlin에 대한 浪漫的인 見解로서 <時代性>이란 한 觀點만을 내 세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Hölderlin 文學을 判定하려는 여러가지 屬性을 例舉하게 될 때 時間과 空間의 一致란 의미의 時代精神에서 出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古典的인 批評家의 態도와 흡사하다. 獨逸의 浪漫主義는 1800年代에 初期浪漫派(Romantische Schule)인 Schlegel 형제와 Tieck에 依하여 浪漫主義의 文學理論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標榜하는 浪漫主義 理論은 實은 初期浪漫派의 獨自的인 것이라기보다 當時의 精神文化界를 支配해온 共通的인 理念이었고 運動이었다. 이를 成立의 前後를 取舍하여 간단히 요약해 본다. 浪漫主義의 成立의 時期는 이미 開花段階에 있는 古典主義와 時期的으로 並行하고 있다. 그러므로 浪漫主義는 古典主義의 後續이 아닌 並存하는 運動으로 보아야 한다. 勿論 그 成立은 古典主義가 先代가 되지만 그러므로 浪漫派는 古典主義에 對한 對立, 내지는 抵抗을 의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共通되는 理念的인 투쟁의 對象은 바로 啓蒙主義(Aufklärung)이었다. 浪漫主義의 成立을 이해하기 위하여 啓蒙主義에 對하여 살펴보면 17世紀에서 18世紀初期의 精神思想을 지배해온 啓蒙主義는 종래의 중세기의 思想的 暗黑과 教會中心의 秩序에서 解放하여 Renaissance의 精神을 확립하고 人間의 自律을 宣言하였으며 15,6世紀의 自然科學上의 發見과 그 理論을 根幹으로 中世의 世界像을 붕괴시키고 英國의 經驗主義와 불란서의 合理主義를 基本理念으로 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철저한 理性主義는 過激하게 되어 合理的인 思考만이 人間의 本質이라 하여 悟性的의 彼岸에 있는 것은 모두 배척하였다. 合理的인 限界에 이른 것이다. 人間의 感情生活이나 宗教的인 感覺은 完全히 도태되었으며 人間은 自然으로부터 고립한 채 오직 經驗의 세계에서 機械的인 生活만이 있으므로 도리어 人間에게 乾燥한 精神을 強요한 結果 마침내 異常을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感性의 不毛地에 點火된 것이 소위 Sturm und Drang 運動이고 이 熱風이 冷却하여 人間의 理想과 藝術의 규범적인 樣式化로 志向된 것이 古典主義라면, 啓蒙主義의 合理的인 것을

非人間性임을 규탄하여 人間에게 主觀과 感性을 認定하고 絶對自由를 누릴것을 提唱한 것, 이것이 浪漫主義의 理念이라고 하겠다. 浪漫派의 理論은 勿論 獨自의인 創案이 아니다. F. Jakob의 感情哲學에서 Kant의 批判哲學을 거쳐 Fichte와 Schelling 그리고 Hegel에 이르는 一聯의 哲學運動을 精神史에서 廣義의 浪漫主義時代라고 하고 浪漫派의 文學理論은 이들 哲學의 觀念의인 思想과 이어진 文學的인 運動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낭만적인 몇가지 要素는 Hölderlin의 理念에 符合하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主觀性이나 絶對的인 自由의 享有란 것은 Hölderlin 자신이 志向하는 基本精神인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Hölderlin을 浪漫的이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連斷이다. 浪漫主義는 上記한 要素가 文學에서 幻想의으로 形象化하는데 對하여 Hölderlin은 오직 精神的인 理念이었을뿐, 文學的으로는 現實性 있는 具體的인 實相을 前提로한 理想을 俱現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文學觀의 차이 때문에 그들은 서로 白眼視 하였는지 모른다. Hölderlin이 한 곳에 定着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으면서도 初期浪漫派의 旗手들과 한번도 對座한 적이 없었다. 다만 Hölderlin과 浪漫的 思想과의 접촉을 말한다면 Fichte와의 交流를 들 수 있을 정도이다. Fichte는 勿論 浪漫派는 아니었지만 그의 철학은 바로 浪漫派의 理論的인 基礎가 되기 때문에 浪漫派와 전혀 무관하다기 보다 오히려 浪漫主義 文學의 成立에 觸媒作用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Hölderlin은 그러나 Fichte에게서 浪漫的인 知識보다는 오히려 獨逸的인 精神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即 당시의 Jena는 Fichte의 名聲으로 가득차 있었다. 哲學者 Fichte는 당시의 獨逸社會의 停滯를 개탄하고 젊음과 知性의 힘을 獨逸의 理念的인 志向에 動員되어야 할 것을 呼訴하였다. Hölderlin은 깊은 감동을 느끼고 Fichte에게 <巨人 Fichte>란 稱號를 주고 친구 Hegel에게 便紙를 썼다.

Fichte ist jetzt die Seele von Jena. Und gottlob! daß er's ist. Einen Mann von solcher Tiefe Und Energie des Geistes kenne ich, sonst nicht... Wenn's sein muß, so zerbrechen wir unsere unglücklichen Saitenspiele und tun, Was die Künstler träumten¹⁶⁾

Hölderlin의 가슴에는 行動에의 意志가 뜨겁게 타올랐다. Fichte가 주는 教訓은 컸다. 人類에게 닥아올, 보다 理想的인 秩序를 위한 行動의 意志는 그의 人類에 대한 理想으로 점점 명료하게 그리고 기탄없이 자라간 것이다. 反面에 Fichte의 知識學이 Hölderlin에게 준 思想的인 面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Fichte의 主潮인 知識哲學은 認識의 主體로서 <自我>를 인정하고 <自我=Ego>는 모든 經驗의 先行的인 前提로서 파악하지 않으면 認識은 分裂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自我>에서 必然的으로 <非我=Non Ego>가 存在하고 궁극적으로 <絶對自我>에 이르게 된다.¹⁷⁾ 이 絶對自我가 바로 浪漫的 無限的인 自由를 示唆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Hölderlin은 Fichte의 <自我>의 絶對的 存在에서 人間の 個性과 自由의 極大化를 共感하고 無限에의 憧憬으로 昇華시켰으나 Fichte가 <非我-Non Ego>의 對象에 Natur를 포함시키는데 反하여 그는 自然은 自我와의 一體感에 의하여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Fichte는 Hölderlin에게 思想的인 形成에 미친 영향이

16) Goldmanns Gelbe Taschen Bücher: Hölderlins Brief. München 1975 S. 59

17) J. G. Fichte : Gruodlage der gesamten Wissenschaftslehre, 日譯 岩波文庫 3859—3860 (要約)

라기 보다 知性과 그 힘의 實踐의인 志向과 行動의 意志로서 Hölderlin 文學의 本質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코 浪漫的인 意味로 解釋할수 없는 것이다. Hölderlin의 文學은 浪漫派와 전혀 無關함에도 그를 낭만주의로 해석하려는 努力을 계속하고 있음을 본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根據는 어디에 있을까? 이러한 內譯이 밝혀지면 곧 Hölderlin 文學의 眞面目이 나타날 것이며 또한 그에 對한 浪漫的인 해석의 眞否를 뚜렷이 밝혀줄 것이다. 文藝批評家는 Hölderlin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年약단 詩人의 生涯를 가혹하리만큼 떠올린다. 一生동안 실재없이 파도에 밀려다니는 浮萍草처럼, 주어진 糊口職도 定着할 땅도 없는 詩人을 지탱하게 해준것은 오직 精神力뿐이었다. 그것은 試鍊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英雄의 精神같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使命을 다하려는 意志의 精神이었다. 神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이미 靈性이 사라진 世界에 傳播하려는 것이 詩人의 使命이며 Hölderlin 자신의 運命이라고 믿는 內剛한 精神의 힘이었다. Gundorf는 이를 가르켜 <Hölderlin의 外的 生活이 그토록 不安定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內的生活은 오직 외길을 걸어간 強毅한 態勢, 밀려오는 失意의 困境에도 한 번도 비굴한 對策을 생각하지 않은 純粹性, 그리고 일체의 妥協을 排斥한 無畏한 姿勢는 바로 英雄의인 獨逸人이었다¹⁸⁾>고 하는데 對해서 R. Haym은 <詩人의 이러한 정신은 바로 浪漫에서 솟아나는 永遠의 힘¹⁹⁾>이라고 부연하고 그의 神의 소리를 낭만의 꿈의 소리와 一致하는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는 Gundorf의 말은 論外로 하더라도 우선 Hölderlin의 심각한 삶에서 浪漫을 抽出하려는 Haym의 意圖에 殘忍함을 느끼게 한다. Hölderlin의 유일한 소설인 Hyperion에 對하여 批評家들은 아름다운 리듬을 가진 音樂이라고 하는데 見解를 같이한다. W. Dilthey는 <作家는 人物과 行爲의 創造者라는 절대적 意味에서 보면 Hölderlin은 Hyperion에서 作家로서 成功하지 못했다. 그러나 Hyperion의 形式이 非造形的인데도 作品全體에 흐르는 音樂의인 情趣가 이를 補完해 주고 있다.²⁰⁾>고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Hölderlin의 文學에서 非造形性과 音樂性을 認定한다면 다음엔 그 音樂精神이 곧 Dionysos의 藝術과 연결된다. 이 Dionysos의 藝術이 바로 浪漫性의 源泉이라고 하여 Hölderlin의 音樂性은 곧 浪漫의 原型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論理의 飛躍이며 徒勞일 뿐이다.

이상에서 Hölderlin의 文學에서 浪漫性과 關聯된 部分을 여러가지 面에서 추구하여 보았다. 물론 이 밖에도 더 많은 觀點과 主張을 볼수 있지만 그 主된 論理는 대개 上述한 論據와 關聯되어 있다고 보아진다. 말하자면 Hölderlin의 浪漫性을 보다 擴大하여 誘視하거나 아니면 細分하여 部分的인 分析에다 장황한 해석을 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Hölderlin의 精髓는 결코 浪漫主義나 古典主義 또는 그 亞流의 어떠한 類型의 主義와 形態를 附着시킨다 하더라도 正鵠의 가장자리에서 맴돌기 마련이다. Hölderlin의 文學은 그의 <孤獨>에서 비롯되어 있다. 세상에

18) F. Gundorf: ibid. S. 102

19) R. Haym: Oie Romantische Schule. S. 94

20) W. Dilthey: ibid. S. 244

서 드물게 비참한 生涯를 불태운 한 詩人의 運命과 孤孤한 그의 文學속에 잠재한 본질의 把握은 철저한 그의 〈孤獨의 意味〉와 〈古代그리스 憧憬〉에서 出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3. Hölderlin文學의 本質

20世紀의 實存哲學者인 Martin Heidegger는 文學의 本質을 解明하기 위하여 Hölderlin을 選擇하면서 그 序頭に 다음과 같은 自問을 하고 있다.

Warum ist für die Absicht, das Wesen der Dichtung zu zeigen, Hölderlinswerken gewählt? Weshalb nicht Homer oder Sophokles, weshalb nicht Vergil oder Dante weshalb nicht Shakespeare oder Goethe? In den Werken dieser Dichter ist das Wesen der Dichtung doch auch und sogar reicher verwirklicht als in dem früh und jäh abbrechenden Schaffen Hölderlins.²¹⁾

Heidegger는 歷史的으로 著名한 詩人들을 念頭に 두면서 〈文學의 本質〉을 究明하는 엄청난 作業에 짧은 作品生活을 끝낸 젊은 詩人을 한 사람 내세운 理由를 解明하기를 〈그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ölderlin이, 더욱이 혼자만이 선택되었다. 그런데 대체로 단 한 詩人의 作品에서 文學의 普遍的인 本質을 抽出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것에 妥當해야 하는 普遍이라하면 比較考察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될 수 있는대로 多樣的 詩와 詩의 多樣的 종류에서 얻은 代表的인 것들이 必要하다. 이러한 경우 Hölderlin의 作品은 다른 많은 작품 가운데 하나에 불과 할 따름이다.²²⁾〉라고 Hölderlin을 선택함에 조심스런 태도를 슬 회하고 있다. 사실 Hölderlin은 古今의 모든 詩人들 가운데 누구나 그 名聲을 기억할만한 詩人도 아니며 그의 詩 한節이라도 獨逸의 民謠 한 귀절 만큼이나 國民에게 口誦된 것이 있었던 건가? 그러한 詩人에게서 文學의 普遍 妥當한 本質을 推究하려는 哲學者의 困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의 普遍 妥當한 概念이 抽出되어서 모든 詩에 똑같이 妥當해야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普遍이란 너울에 말리어 一沫의 價値도 없는 虛構의 命題를 꾸려서 귀절이와 코걸이式으로 活用한다면 이보다 더 無意味한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어렵고 스스로 矛盾에 빠질 위험을 무릅쓰고 Heidegger는 Hölderlin을 지적인 理由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Hölderlin ist nicht darum gewählt, weil sein Werk als eines unter anderen das allgemeine Wesen der Dichtung verwirklicht, sondern einzig deshalb, weil Hölderlins Dichtung von der dichterischen Bestimmung getragen ist, das Wesen der Dichtung eigens zu dichten. Hölderlin ist uns in einem ausgezeichneten Sinne der Dichter des Dichters²³⁾

文學의 本質을 捕捉하려는 Heidegger의 노력을 보면서, 그에게 眞實한 文學의 精粹를 보여준 Hölderlin의 文學에 對하여 새삼 우리는 깊은 바다속에서 寶物을 찾은 것같은 뜻밖의 수확을 얻

21) M. Heidegger: Erläuterung zu Hölderlins Dichtung Vittorio Klostermann Verlag, Frankfurt a. M. 1975, S. 31

22) M. Heidegger : ibid. S. 31

23) M. Heidegger : ibid. S. 32

은 격이다. Heidegger는 文學이란 큰 問題를 놓고 그 핵심이 되는 文學의 本質을 追求하려는 對象에 Hölderlin의 文學을 선택한 것은 <Hölderlin의 文學속에 진실로 文學의 참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Heidegger는 Hölderlin을 <詩人중의 詩人-der Dichter des Dichters²⁴⁾>이라고 指稱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필자의 本論 Heidegger가 Hölderlin 文學에서 <文學의 本質-das Wesen der Dichtung>을 究明하려는데 對하여 <Hölderlin의 文學의 本質-das Wesen Hölderlins Dichtung->을 究明하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Hölderlin 文學의 本質을 밝히므로써 Heidegger의 Hölderlin 선택에 대한 合理性을 또한 證明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일찌기 詩人의 어머니는 Hölderlin이 牧師가 될 것을 所望하였다. 이것은 두가지 뜻을 지니는데 하나는 일찍 死別한 남편의 職業이 었던 僧院의 執事に 副應하려는 것과 어릴 때 부터 연약한 體質과 思索的인 조용한 性品인 Hölderlin에게 聖職의 適性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ölderlin은 어머니의 所望을 끝내 拒否하고 말았다. 그는 神學校를 거쳐서 Tübingen 大學의 給費生으로 神學課程을 修了 하였으나 牧師는 되지 않았다. 그는 安逸한 職業,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속에 自身을 구속하고 信者들 앞에서 神의 態度를 해야 하는 牧師보다는 世界와 人間과 理想을 討論하고 宇宙와 自然과 神의 眞理를 탐구하는 것이 自身에게 주어진 運名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Hölderlin은 이 運命에 대하여 참으로 깊이 생각하였다. 그는 運命을 神의 攝理로서 人間에게 決定되어 진 것이 아니라 精神의 소리로서 받아 들인다. 즉 思考에 의하여 精神의 限界를 意識하고 自身의 指向을 精神의 소리로 듣는 것이 運命인 것이다.

그러므로 運命은 個體의 主觀이며 意志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詩人이란 모름지기 이 運命을 파악하고 그 靈의 소리를 정숙한 자세로, 精密한 詩語로, 精巧한 表現으로 옮길 수 있는 者만이 詩人이라고 생각한다. Heidegger의 <詩의 本質을 쓰는데 使命을 다하는 詩人>이라고 指稱함은 바로 이 뜻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Heidegger가 取한 Hölderlin의 <Die fünf Leitworte->다섯가지 主導的인 말²⁵⁾을 들어보면

1. Dichten: Diss unschuldigste aller Geschäfte". (Ⅲ, 377.)
2. "Darum: ist der Güter Gefährlichstes, die Sprache dem Menschen gegeben ..damit er zeuge, was er sei..."(Ⅳ, 246.)
3. "Viel hat ertahren der Mensch. | Der Himmlischen viele genannt, | Seit, ein Gespräch wir sind. | und hören können vonenander"(Ⅳ, 343.)
4. "Was bleibet aber, stiften die Dichter", (Ⅳ, 63.)
5. "Voll verdient dochdichterisch wohnt Der Mensch auf dieser Erde²⁶⁾". (Ⅵ, 25.)²⁷⁾

Hölderlin의 思想的 形成期에 가장 現實的이고 획기적인 事件은 佛蘭西革命이었다. 그는 獨逸

24) Heidegger는 특히 강조하기 위하여 綴字의 간격을 한字씩 띄었다.

25) Heidegger가 Hölderlin에 있어서의 文學의 本質을 究明함에 있어서 Heidegger가 選定한 Hölderlin詩作品에서 取材한 命題

26) M. Heidegger : ibid. S. 34

27) Heidegger가 引用한 Hölderlin 作品集의 出處를 名記한것임.

社會가 專制的인 沈滯에서 벗어나 市民이 自由를 얻는 계기가 이때가 아닌가 하고 닥아올 變革을 학수고대 하였지만 모든 기대는 물거품처럼 希望의 여지도 없었다. 絶望한 Hölderlin은 生의 意義를 잃은 듯했다. 삶의 빛을 잃은 그는 意識하는 끝까지 안으로 자지러졌다. 이 挫折感은 그로 하여금 무서운 轉換을 가져왔다. 그는 活動과 享樂에서 아니 世界에서 자신을 幽閉시켰다. 그는 끝없는 孤獨속으로 잠적한 것이다. 그는 오직 자신의 內面로부터, 自然에서 어두운 世界 속에 잠자고 있는 神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神의 소리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이 무렵에 쓴 그의 詩 <Lebensgenuß—生의 즐거움>를 보면 그의 內面에 흐르는 生의 意志를 볼 수 있을 것이다.

Getrost! Es ist der Schmerzen wert dies Leben. / So lang uns Armen Gottes Sonne scheint / Und Bilder besser Zeit um unsere Seelen schweben, / Und ach! mit uns ein treues Auge weint²⁸⁾

삶의 즐거움을 잃은 詩에 그는 <이 世上에서 괴로워 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였다. 世上의 온갖 수모를 감수하고 삶의 즐거움이라곤 어느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의 생활속에서도 그는 삶을 사느 뜻은 간직하고 있었다. <우리들 가련한 사람들에게 神의 빛이 비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는 가련한 삶이란 누구를 指稱하는 것일까? 그는 진정한 人間性의 不在, 自由의 상실, 神의 목소리를 잃은 祖國 獨逸의 回生을 희망하고 있었다. Hölderlin에게 있어서의 비극의 主人公은 이를테 없는 自身の 現實의인 괴로움이 아니고 無知속에서 사는 獨逸人 그들이 었다. <그들은 실로 눈물을 같이하는 다정한 눈을 가진 친구>였다. Hölderlin은 어둠 속에서 줄곧 思索하였다. 무서운 苦行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詩를 얻었다. 이것만이 그의 求遠의 길이었던 것이다. 詩人은 世界와 人類가 지향해야 할 可能性을, 頹廢한 독일국민에게 君臨해야 할 英雄精神을, 神性과 自然의 意志로서 再現되어야 하는 美를, 이러한 永遠의 意味를 담은 詩를 쓰는 詩人을, 진실로 詩人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眞實한 詩人이 되기 위하여 自身을, 世界를, 그리고 未來를 靜觀하였다. 이것을 詩人의 豫言者의인 點이라고 Dilthey는 말하였다.²⁹⁾ Hölderlin은 그러나 詩人이 되기까지는 崇高한 精神과 殉教의인 결의를 요구한다. 神의 위대함을, 自然의 아름다움을, 人間의 英雄을 그리고 神性을 傳達하는 詩人을 희구하는 詩人, 그 詩人에게 언제나 苦惱가 따르며, 內面속에 있는 기쁨을 음미하는 詩人에게는 환경에 무거운 시련이 지워진다는. 決意를 다지면서 그는 詩人이기에 自身을 속박하지 않을 수 없었다. 詩人이 되려는 그는 生活과 환경과 本能的인 苦惱를 忍耐하여야 했다. 이러한 모든 重壓의 體驗을 날날이 生命으로 感受하여야 했다. 그리고 이 體驗속에서 그는 神의 목소리와 靈魂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詩에 옮기는 것이다. 그 목소리는 萬人의 소리속에서 區別 되어야 하고 時間에 따라 高低가 變하고, 느낌에 따라 音響이 다르게 들려온다. 詩人은 이 모든 것을 生命이 있는것 같이 區別하여야 하고, 變함이 있고, 높고

28) Sämtliche Werke Band I. seit 210

29) W. Dilthey: ibid. S. 239 (要約)

낮음이 다른, 그러한 言語를 고르고 다듬어야 한다. 이 世上 누구도 經驗하지 못한 순수한 하나의 體驗에 대하여 보편적인 특징없는 言語로서는 결코 정확한 개념을 포착할 수가 없는 것이다. Hölderlin은 詩人의 使命에서 言語를 찾았으며 정확한 表現에 새로운 리듬을 붙여 그의 詩는 樂譜없는 音樂이 되었다. 이것이 未來를 豫示한 Hölderlin의 創造였다. Dilthey는 結言하기를

In der prophetische Schöpfung bereitete sich der rhythmische Stil eines Nietzsche vor, die Lyrik eines Verlaine, Beaudelaire, Swinburne. und was unsre neueste Dichtung sucht.³⁰⁾

한 詩人의 創造의 精神이 이처럼 숭고한 경우 그에게서 태어난 詩는 필경 피로 빛은 그의 分身처럼 고귀한 것이다. 한 詩人이 後世의 思想家와 詩人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안겨준 詩人이 있을까? 當代의 Holderlin은 名聲은 커녕 그의 詩를 理解해 주는 이 조차 드물 정도였다. 그는 자신이 豫見한 것 같이 未來를 위해 산 불우한 詩人이었다. 祖國을 사랑하고, 人類를 사랑하고 그리고 宇宙를 形成한 神과 自然을 사랑한 것이다. 이것이 그의 世界觀인 <萬有在神의 思想—Pantheismus> 이었다. 有限的인 現實속에 있는 많은 종류의 要素(因子)로 부터 멀리 떨어진 神의 힘은 時間속에 宇宙를 낳지만 人間의 精神은 神과 같이 永遠히 發展해 가는 地上의 온갖 存在보다도 우월하다고 믿은 Holderlin은, 이 人間的인 精神을 俱現하려는 것, 이것이 그의 詩의 精神이었고 詩人의 本質이 었다.

Hölderlin의 그리스 精神과 獨逸主義

Hölderlin이 古代그리스에 臨하는 精神은 그의 人間과 思想과 文學의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러한 그리스 精神은 그의 作品 全篇에 넘치는 그리스憧憬에서 엿볼 수 있다. 이 그리스의 憧憬에 대하여 批評家들의 억척같은 見解는 前述한 바이지만 사실 Hölderlin 만큼 이토록 충실하게 일체를 排除하고 오직 하나의 憧憬에 始終한 詩人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그리스 동경은 동경이라기 보다 하나의 宗教的이라고 말할 수 있다. H. Brandenburg는, <Hölderlin은 순수한 獨逸人이면서 또한 순수한 그리스인인 될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순수한 獨逸人이면서

낮음이 다른, 그러한 言語를 고르고 다듬어야 한다. 이 世上 누구도 經驗하지 못한 순수한 하나의 體驗에 대하여 보편적인 특징없는 言語로서는 결코 정확한 개념을 포착할 수가 없는 것이다. Hölderlin은 詩人의 使命에서 言語를 찾았으며 정확한 表現에 새로운 리듬을 붙여 그의 詩는 樂譜없는 音樂이 되었다. 이것이 未來를 豫示한 Hölderlin의 創造였다. Dilthey는 結言하기를

In der prophetische Schöpfung bereitete sich der rhythmische Stil eines Nietzsche vor, die Lyrik eines Verlaine, Beaudelaire, Swinburne. und was unsre neueste Dichtung sucht.³⁰⁾

한 詩人의 創造의 精神이 이처럼 숭고한 경우 그에게서 태어난 詩는 필경 피로 빛은 그의 分身처럼 고귀한 것이다. 한 詩人이 後世의 思想家와 詩人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안겨준 詩人이 있을까? 當代의 Holderlin은 名聲은 커녕 그의 詩를 理解해 주는 이조차 드물 정도였다. 그는 자신이 豫見한 것 같이 未來를 위해 산 불우한 詩人이었다. 祖國을 사랑하고, 人類를 사랑하고 그리고 宇宙를 形成한 神과 自然을 사랑한 것이다. 이것이 그의 世界觀인 <萬有在神의 思想—Pantheismus> 이었다. 有限的인 現實속에 있는 많은 종류의 要素(因子)로 부터 멀리 떨어진 神의 힘은 時間속에 宇宙를 낳지만 人間의 精神은 神과 같이 永遠히 發展해 가는 地上의 온갖 存在보다도 우월하다고 믿은 Holderlin은, 이 人間的인 精神을 俱現하려는 것, 이것이 그의 詩의 精神이었고 詩人의 本質이 었다.

Hölderlin의 그리스 精神과 獨逸主義

Hölderlin이 古代그리스에 臨하는 精神은 그의 人間과 思想과 文學의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러한 그리스 精神은 그의 作品 全篇에 넘치는 그리스 憧憬에서 엿볼 수 있다. 이 그리스의 憧憬에 대하여 批評家들의 억척같은 見解는 前述한 마지만 사실 Hölderlin 만큼 이토록 충실하게 일체를 排除하고 오직 하나의 憧憬에 始終한 詩人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그리스 동경은 동경이라기 보다 하나의 宗教的이라고 말할 수 있다. H. Brandenburg는, <Hölderlin은 순수한 獨逸人이면서 또한 순수한 그리스인이 될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순수한 獨逸人이면서 순수한 기독교인 일 수 있듯이³¹⁾>란 말을 상기하면 그의 憧憬을 浪漫的인 꿈의 形象이라던가 古典的인 意味에서 Renaissance라는 해석보다 훨씬 깊은 信仰으로서 그의 그리스의 동경은 그리스 精神이 形成된 배경과 내용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Hölderlin과 그리스의 關係는 Mauthouren 神學生 時節로 소급된다. 그는 그리스의 文獻을 즐겨 읽었다.

그의 그리스의 探究는 Tübingen 大學에서도 취지 않았다. 그는 가까운 학우로서 Hegel과 Schelling 그리고 Sinclair과 더불어 討論하였다. 그리스의 文學과 哲學에서 그의 그리스 精

30) W. Dilthey: ibid. S 290

31) H. Brandenburg; Friedrich Hölderlin. seit 18

神은 形成되어 갔다. 즉 Hölderlin은 그리스에서 神과, 自然과, 人間의 相關에서 最상의 調和를 보았다. 自然은 神과의 調和에서 美를 낳게 되었으며, 人間은 神의 仲裁로서 비로서 自然과의 調和에 도달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世界를 形成하는 세 因子는 서로 分離할수 없다. 自然 속에 人間이, 그리고 人間속에 自然이 있어야 하고 그 面面마다 神의 뜻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古代그리스에서는 人間이 만든 文明이 自然과 背理되지 않던것은 그속에 神性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古代 그리스는 人間의 理念을 具像化하는 實踐的인 精神, 이것이 곧 그가 갈망하는 Griechischer Geist인 것이다. 그는 그리스 精神의 俱現을 祖國인 獨逸에서 이루어 질것을 至上的 生命처럼 기대하였다.

1770年代의 독일은 여전히 封建的인 諸候의 暴政속에서 未來를 잃은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다. 生動하는 青年들은 솟구치는 情熱의 突破口를 찾지 못한채 哲學과 같은 知識慾으로 情熱을 불태우고 있었다. 특히 Kant, Fichte, Schiller 그리고 Humboldt 같은 知性이 지향하는 自由에의 理想主義는 독일의 青年들을 열광시켰다. 佛蘭西革命은 충격이었다. 그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곧 自由의 불길은 독일에 點火되고 활활 타올라 온 世界에 새로운 世界가 탄생하기를 기대하였었다. Hölderlin의 가슴도 한껏 부풀었다. 그는 Tübingen 大學生 들의 政治集會에도 참가하여 祖國의 自由를 위한 투쟁의 隊列에 나섰다.

그는 自由가 쟁취되고 人間이 승리하는, 그리하여 理想主義의 實在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世紀의 大革命은 실패하고 말았다. 詩人의 바램은 어떠하였는가? 그는 〈Hymen an die Freiheit- 自由에 불이는 頌歌〉에서

Wenn verödet die Tyrannenstühle, / Die Tyrannenknechte Morder Sind³²⁾

얼마나 專制君主에 對한 詛呪가 컸고 그 沒落을 기대하였으면 詩人은 〈暴君의 의자가 땅위에서 마스러지기를〉 기원하고 그리고 〈暴君의 노예가 썩어 문드러 질때〉를 바랐는지 모른다. 詩人의 挫折感은 극도에 달했다. 外面에서 오직 自由의 旗를 드는 일마저 잃어버렸다. 詩人은 內面속으로 凝結되어 버렸다. 詩人의 마음은 Helas를..., 古代 그리스에 대한 憧憬은 바로 그의 그리스 精神이었다. 그것은 祖國愛로 昇華되어 마침내 그의 獨逸主義로 形象化 되어갔던 것이다. Hölderlin은 古代 그리스의 그 榮光이 독일에서 기록되기를 祈願하였다. 人類歷史에 있어서 自然과 인간이 융합하며 美로 昇華한 그리스, 그 그리스의 英雄이 이 땅에 나타나서 自然과 人間이 제 자리에 앉게하고 神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自然의 天地가 오기를 갈망하였다. Hölderlin은 그리스를 憧憬한다. 그의 憧憬은 한갓 그리움이 아닌 사랑이었다. 사랑은 詩人이 믿는 힘이고, 生命이며, 宇宙의 秩序인 것이다. 詩人의 憧憬, 아니 詩人의 사랑은 연약한 것이 아니고 現實을 志向하는 무궁한 動力이며 그러므로 神的인 것이다. 이 神的인 힘을 가장 숭고하게 바쳐야 할 世界가 바로 祖國인 것이다. 祖國은 결코 否定할 수 없다. 詩人의 그리스에의 憧憬인 궁극적인 그리스

32) Hölderlin Sämtliche Werke, Band I. S. 70

는 獨逸이었다. Hölderlin의 그리이스 精神은 이렇게 獨逸主義로 發展해간 것이다. 그는 獨逸을 사랑하였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단순한 피와 연결된 素朴하고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찬란한 인류의 理想이, 古代 그리이스의 실현을 회구한 獨逸이었고 神의 創造인 自然과 같은 文明을 創造할 能力을 기대한 독일인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彼岸에서 無能한 수모를 겪는 독일인의 無氣力함을 미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獨逸主義는 결코 民族主義나 더욱이 國粹主義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의 獨逸에의 사랑은 前述한 그리이스 精神의 실현에서 궁극적으로 인류에의 사랑으로 발전한다. 그의 文學에서 祖國愛란 獨逸愛이며 이것은 인류애로 歸結되는 것이다. 그의 作品에서 이 〈人類愛〉가 얼마나 많이 섞여졌는가를 보면 자명할 것이다. 그는 Tübingen 時代に 이미 이 人類愛를 위한 봉사의 뜻을 말하고 있다.

Meine Liebe ist des Menschengeschlecht, Ich liebe die große schöne Anlage auch in verdorbenen Menschen. Ich liebe das Geschlecht der Kommenden Jahrhunderte. Denn dies is meine seligste Hoffnung, der Glaube, der mich stark erhält und tätig, die Freiheit muß einmal Kommen, wir leben in einer Zeitperiode, wo alles hinarbeitet auf besser Tage. ³³⁾

그는 1793년에 동생에게 보낸 便紙에 자신의 人類愛에 대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는 人類를 사랑하는 이유를 언젠가는 쟁취할 수 있고 自然을 아름답게 할수있는 能力을 믿었던 것이다. 〈이것이 나의 信仰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있는 希望을 피력하였다. 우리는 詩人の 憧憬이 무엇이며, 希望이 무엇이며, 그의 詩的 使命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여기 M. Heidegger는 그의 Erläuterungen zu Hölderlins Dichtung에서 Hölderlin의 詩 〈Wort und Wein〉을 例示하고서 詩의 해석을 담고 있다. Hölderlin의 文學과 思想의 斷面을 보여 주기에 一部를 번역하여 옮긴다. 〈너부나 풍요했던 까닭에, 詩人은 지나간 일을 생각하고 닳아 오는 未來를 기다리기에 지쳐 버렸다. 보이는 걸모양은 이따금 폐虛속에 잠자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는 이 밤의 허공속에 굳게 서있다. ³⁴⁾ 詩人은 자신의 이 使命으로 인하여 더 없는 孤獨속에 잠기어 자신의 자신을 지키면서 그는 그의 民族을 代表하여 그러므로써 진실로 자신의 民族을 위하여 眞理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다. Heidegger의 짧은 말속에 Hölderlin의 孤獨과 使命과 民族과 그리고 民族을 위한 眞理가 얼마나 그에게 密着된 本質인가를 우리들에게 일러준다.

5. 結 論

Hölderlin은 當代에서 뿐만 아니라 훨씬 後期에 와서도 그의 文學은 認定을 받지 못했었다. 따라서 詩人은 그의 生涯와 더불어 不幸한 人間이었고 文學이 있던 것이다. Hölderlin의 文學을 理解하고 열광적으로 받아 들였던 時期는 거의 20世紀에 이르러서이다. 1878年 Wilherm Winde-

33) Goldmann Gelbe Taschen Bücher: ibid. S 29

34) M. Heidegger: ibid. S 87

rband의 論文〈über Friedrich Hölderlin und seine Schicksal-Hölderlin과 그의 運命에 關하여³⁵⁾〉이 發表됨으로써 세상에 처음으로 注目을 받기시 작하였다. 특히 Wilherm Dilthey가 Hölderlin에 대한 本格的인 研究인〈Erlebinis und Dichtung〉가 발표되어 그를 넓은 범위에서 考察하고 그의 文學의 價値를 Goethe와 같은 位置에 올려 놓음으로써 Hölderlin의 理解는 시위를 타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에게 열광적인 환영을 받은 것은 一次大戰이 끝난 뒤였다.

一次大戰以後 독일의 知性은 폐허에 선 채 그들이 指向할 精神적 支柱를 잃고 彷徨하고 있을 때 Hölderlin은 그들에게 豫言的인 文學으로 推仰되었다. 現實과 靈界와의 分裂을 豫言한 詩人에게서 새로운 意味를 發見하고 환영하였던 것이다. 文學研究의 새로운 方法으로서의 〈文藝學-Literaturwissenschaft〉이 보급됨으로서 獨逸文學史上 黃金時代라고 일컫는 古典主義와 浪漫主義 研究와 함께 Hölderlin 文學의 研究도 왕성하여 졌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解釋學的 立場에서 批判되었기 때문에 그 獨自性和 本質의 구명은 度外視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를 古典主義로 보는가 하면 一方 그를 浪漫主義로 配席하기도 한다. 近者에 이르러 Hölderlin을 古典派 또는 浪漫派에의 예속이 部分的으로는 可能하지만 총체적인 本質的 相異性을 어느정도 認定하게 되어 一部 文學史家들은 그를 古典主義나 浪漫主義에 예속시키지 못하고 Jean Paul과 같이 別章으로 取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Hölderlin 文學의 本質에 대한 깊은 把握과 應당 수반해야 할 獨自的인 領域이 없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시대의 普偏性에 의하여 야기되는 誤解를 막고 Hölderlin 文學의 豫言者的인 文學은 제자리 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Martin Heidegger: Erläuterungen zu Hölderlins Dichtung, Vittorio Krostermann Verlag, Frankfurt am Main, 1951
2. Wilherm Dilthey: Das Erlebnis und Dichtung, B. G. Teubner Verlagsgesellschaftm. b. H. Stuttgart, 1957
3. B. Boesch: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in Grundzügen 韓國獨文學會 譯, 1970
4. W. Böhm: Hölderlin, Otto Elsner Verlag, Berlin, 1917
5. F. Gundorf; Dichter und Helden: 橋 忠衛譯, 櫻井書店, 日本 1942
6. R. Haym: Die Romantische Schule, George Müller Verlag, München 1931
7. H. Brandenburg: Friedrich Hölderlin, Tübingen 1927.
8. F. Hölderlin Sämtliche Werke, Stuttgater Ausgabe Hrsg. Stuttgar 1956.
9. Dr. Gerda Brenning: Erläuterungen zu F. Hölderlilins Hyperion, C. Bange Verlag

35) 1878년에 그는 (序曲)이라 題한 單行本에 論文(Friedrich Hölderlin과 그의 運命에 關하여)를 처음 發表하였다.